

시험을 대비하는 문제집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01.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본책 4~7쪽

- ① 능동적 ② 읽기 목적 ③ 배경지식 ④ 의도
⑤ 한계 효용 ⑥ 강렬함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⑤ 06 독자에
게 친근한 무한 리필 식당의 사례를 예로 들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07 ⑤ 08 ③
09 ④ 10 ② 11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읽는다. 12 ⑤

- 01 (나)에서 서아는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나)는 글을 읽기 전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 한 것이다. (나)에서 서아는 자신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답을 찾고 있지는 않다. 자신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글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활동이다.
- 02 (가)에서 서아는 관심 있는 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청소년이 읽기에 적절한 경제 분야의 책을 고르고 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읽으려는 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 03 (나)의 차례에서 '소설에서 만나는 경제적 선택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 책은 소설과 경제 지식을 엮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①의 제목에서는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대해 질문하고, ①의 부제에서는 소설 「소나기」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설 「소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까닭을 경제학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04 이 글은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과 같은 인간의 심리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ㄱ). 이때 경제 지식이 부족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경제학에서의 '한계'와 '효용'의 의미를 먼저 설명함으로써 '한계 효용'의 개념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ㄷ). 또한 '무한 리필 식당은 어떻게 계속 운영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ㄴ).
- 05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였으므로, 비슷한 물건을 하나둘 사 모으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은 한계 효용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한 접시씩 추가로 먹을 때마다 느끼는 순간적인 만족감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였으므로, 무한 리필 식당에서 한계 효용은 여러 번 느낄 수 있다.

③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은 사람들이 음식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무한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④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음식을 추가로 먹을 때마다 느끼는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였으나, 어느 순간 한계 효용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지는 않았다.

06 이 글은 '한계 효용'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개념을 무한 리필 식당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어려운 경제 원리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07 음식을 통해 얻는 전체적인 만족감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총 효용이 가장 클 때, 즉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접시가 아니라 네 번째 접시의 음식까지 먹은 후 그만 먹어야 한다.

08 <보기>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고려하여 등장한 메뉴인 짬짜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글을 읽은 후 글에 제시된 사례 외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또 다른 예가 있는지 궁금하여 <보기>의 자료를 찾아본 것이므로, 이와 관련 있는 점검과 조정 방법은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이다.

09 (마)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첫사랑의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이를 특별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가장 강렬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추억하면서 「소나기」와 같이 첫사랑을 소재로 한 노래나 영화, 소설을 찾게 되는 것이다.

10 (라)에서 어떠한 감정을 처음 경험할 때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이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느낌의 정도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줄어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영화를 반복하여 보면서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이 줄어든 경우(ㄴ)와 물을 계속 마시면서 처음 마셨을 때의 시원한 느낌이 줄어든 경우(ㄷ)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보기>는 개학 날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긴장감이 이후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교실이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였으므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감정의 강렬함에도 적용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02. 문학속 말하는 이나 보는 이)

본책 8~11쪽

- ① 서울 ② 아빠 ③ 희망 ④ 당당함 ⑤ 가족
⑥ 특성

01 ② 02 ② 03 ② 04 (1) 아빠가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고 오래된 밑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을 들킬까 봐 곤란해한다. (2)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된다.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고되게 생활하는 아빠의 상황에 속상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다. 10 ⑤ 11 생라면을 먹는 것은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2 ②
13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이다.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말하는 이가 되어 자신이 경험한 일과 그에 관한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검색했다', '알려 주었다' 등과 같이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③ (나)와 (라)에서 각각 '나'와 할머니, '나'와 아빠의 대화 장면이 나타난다.

④ '나'가 경험한 일을 '나'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므로,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02 (나)에서 '나'는 아빠한테 가서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빠와 함께 서울에서 살까 고민한다. 그러나 연서를 잘 돌봐 주어야 한다는 엄마의 부탁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나'는 할머니의 말과 엄마의 부탁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엄마가 '나'에게 연서를 잘 돌봐 주어야 한다고 부탁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나'가 엄마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서와 함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라)에서 아빠는 초라한 방에서 고되게 생활하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에게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한 것이므로, 아빠가 냉정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에서 '나'는 아빠가 어디에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아빠의 집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가 서울에 있는 아빠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나'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아빠와 함께 서울에서 살까 고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서울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있지는 않다.

03 (나)에서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할머니를 좋아하는 연서는 떼어 놓고 서울에서 아빠와 살까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연서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아빠와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할머니와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는 것보다 할머니와 사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04 아빠는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아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빠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빠가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고 오래된 밑반찬을 치우지 않은 채 지내는 것을 들킬까 봐 곤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에서 '나'는 아빠의 집이 빌딩일지 아파트일지 궁금해하면서 아빠가 서울에서 사는 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에서 '나'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아빠의 집 앞에 도착하여 아빠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실망하고 있다.

06 아빠는 현재 서울에 있는 작은 쪽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고되게 일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보기>와 같이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말하는 이가 아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아빠의 속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08 [A]에서 아빠는 자신을 꽃이나 나무에 빗대어 희망적인 말을 건넨으로써 '나'에게 든든함과 안도감을 주고 있다. 즉 꽃이나 나무가 새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힘이 드는 것처럼, 자신도 시간과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 결국 서울에 적응하여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09 '나'는 냄비와 물도 없이 좁은 방에서 고되게 생활하는 아빠의 상황에 기가 막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서, 라면 봉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화풀이를 한 것이다.

10 '나'는 동생 연서를 아끼며 애정 있게 대하고 있으므로, '나'가 연서의 질문에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는 연서에게 생라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서울에서 겪은 일을 모두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보기>를 통해 생라면을 먹는 행동에는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빠가 생각날 때 생라면을 먹으면 서울에서 '나'와 연서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일하는 아빠를 응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마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12 이 시는 '물고기 일동'을 말하는 이로 하여, 물고기의 관점에서 '비린내'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13 이 시의 말하는 이인 '물고기 일동'은 '비린내'를 각각의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로 인식하고 있다.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본책 12~15쪽

- ① 피동 ② 되다 ③ 객관적 ④ 쓰이다 ⑤ 형식
⑥ 간접 ⑦ 간결 ⑧ 왜곡

01 ② 02 ⑤ 03 ④ 04 우산이 바람에 (의해) 뒤집혔다. 05 ④ 06 ② 07 피동 표현 '판단됩니다, 보입니다'가 사용되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08 ② 09 ④ 10 '열려진'은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중복하여 쓰인 이중 피동이므로, '열린(열어진)'으로 고쳐야 한다. 11 ③ 12 ③ 13 영화는 나에게 "나도 시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② 19 ① 20 ④

- 0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으로(ㄹ),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또는 '-어지다/-아지다'를 붙여 만들거나(ㄴ), 일부 명사에 '-되다'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ㄱ). 그리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부사어로, 목적어는 주어로 바뀐다.
- 02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는) 그녀를 이달의 선수로 선정하였다.'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문장의 주어는 명료하게 설정할 수 없으며, '이달의 선수로'는 부사어로 유지된다.
- 03 '아이가 강아지를 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강아지가 아이에게 안기다.'가 되므로, 피동 접미사 '-기-'가 필요하다.
| 오답 풀이 | ① '과자를 팔다'의 피동 표현은 '과자가 팔리다'이므로, 피동 접미사 '-리-'가 필요하다.
② '다리를 건설하다'의 피동 표현은 '다리가 건설되다'이므로, '-되다'가 필요하다.
③ '가방 끈을 묶다'의 피동 표현은 '가방 끈이 묶이다'이므로, 피동 접미사 '-이-'가 필요하다.
⑤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의 피동 표현은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다'이므로, 피동 접미사 '-히-'가 필요하다.
- 04 능동 표현인 '바람이 우산을 뒤집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 표현의 주어인 '바람이'를 부사어로 바꾸고, 목적어인 '우산을'을 주어로 바꾼다. 그리고 '뒤집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이면 '우산이 바람에 (의해) 뒤집혔다.'로 바꿀 수 있다.
- 05 '나는 그 사실을 잊었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를 부사어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잊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그 사실은 나에게 잊혔다.'

와 같이 바꿀 수 있다. 또는 '잊다'에 '-어지다'를 붙여 '그 사실은 나에게 잊어졌다.'로 바꿀 수도 있다.

- 06 <보기>에서 ㉠은 피동 표현이고, ㉡은 능동 표현이다. 학생이 ㉠과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창문을 깬 행위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창문이 깨진 상황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07 제시된 뉴스 보도에서는 '판단됩니다, 보입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 전망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므로써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낼 수 있고, 전달하려는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주어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 08 일상에서 사용되는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으므로써 말하는 사람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남학생이 '이 수박이 맛있어 보여.'라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것은 어떤 수박을 사야 하는지 묻는 친구의 말에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고 신중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 09 ㄱ에서 '쓰여진'은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 피동이고, ㄴ에서 '잊혀진'은 '잊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 피동이다. ㄷ에서 '놓여진'은 '놓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 피동이고, ㄹ에서 '보여지는'은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 피동이다.
| 오답 풀이 | ㄴ. '믿기지는' '믿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 표현으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열려진'은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은 피동 표현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열려진'은 '열린' 또는 '열어진'으로 고쳐야 한다.
- 11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이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을 직접 인용, 내용만 끌어다 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간접 인용이 형식은 유지한 채 내용만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하며,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종결 표현, 지시 표현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인용하는 문장 속 '너'를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로 바꾸고, '내일'을 '오늘'로 바꾸며, 종결 표현을 '-냐'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어제 나에게 나도 오늘 갈 거냐고 물었다.'로 바꿀 수 있다.

13 <보기>를 직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영희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고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이며, 인용하는 문장 속 '자기'를 '나'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간접 인용에서의 종결 표현 '-다'는 보통 평서문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희는 나에게 "나도 시를 좋아해."라고 말했다.'로 바꿀 수 있다.

14 '안내원은 나에게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꾼다. 그리고 '그쪽'을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에게 가까운 표현인 '이쪽'으로 바꾸고, 인용하는 문장의 종결 표현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로 바꾸면, '안내원은 나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말했다.'가 된다.

15 <보기 1>은 직접 인용, <보기 2>는 간접 인용으로, 모두 할머니의 말을 끌어다 쓰고 있다. <보기 1>은 할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반영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보기 2>는 <보기 1>에 비해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할머니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 1>과 <보기 2>를 비교했을 때, <보기 1>이 <보기 2>와 달리 할머니의 말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6 원래의 기사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로 작성되었는데, <보기>에서 학생은 원작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은 카페인 음료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원작자의 의도를 왜곡해서 인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조언을 할 수 있다.

17 ㉠은 피동 표현인 '밝혀졌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달하는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연구 결과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내용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18 ㉡은 전문가인 연구 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 직접 인용을 통해 연구 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에 실린 연구 팀의 설명을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직접 인용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19 ㉢, ㉣는 모두 피동 표현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와 주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글쓴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 ㉢, ㉣는 모두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 ㉢, ㉣는 모두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는 모두 명사에 '-되다'를 붙여서 만든 피동 표현이다.

㉤. ㉢, ㉣는 모두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20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활용할 때에는 그 의도나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이중 피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거나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 ㉤.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02.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본책 16~19쪽

1 의도 2 재생 3 현혈 4 마음 5 성별
6 변화 7 능동적 8 비판적

01 ㉤ 02 ㉤ 03 ㉢ 04 ㉡ 05 생명을 살리는 현혈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06 ㉡ 07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현혈의 가치를 강조하고 현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08 ㉤ 09 ㉤ 10 장면 ㉢에서 마음을 전해 받은 배달원이 <보기>에서 일을 하며 마주친 경비원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1 ㉣ 12 ㉡ 13 ㉢ 14 ㉣

01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고 있는 두 사진은 모두 비 오는 날의 노란 장화를 찍은 것으로, 대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노란 장화를 신고 빗물을 튀기는 모습의 사진에 웃음소리와 같은 청각적 요소를 추가로 활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 두 학생은 비 오는 날의 노란색 장화라는 비슷한 대상을 찍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두 사진은 모두 비 오는 날의 노란 장화를 사진으로 재현한 것으로,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재구성되어 나타난다.

㉢. 노란 장화를 신고 빗물을 튀기는 모습에서 신나고 즐거운 마음이 느껴지고, 경쾌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 노란 장화가 홀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의 사진은 쓸쓸한 느낌이 들고, 외로운 감정이 전해지고 있다.

02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즉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현하느냐에 따라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실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가 누구이든 현실에서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부분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04 (가)와 (나)는 모두 현혈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공익 광고이다.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영상만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재생'될 수 있음을 밝히며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현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를 배제하여(ㄷ)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현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나. (가)와 (나)는 현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 현혈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ㄹ. (나)는 영상 광고로,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 등과 같은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냈다. 반면 (가)는 인쇄 광고로, 이미지와 문구만 활용하였다.

05 (가)에서는 '재생'이라는 단어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덧붙여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06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과 함께 심장 박동 그래프를 제시하여 현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 처치가 중요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7 (나)에서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현혈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현혈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08 이 광고는 '먼저 마음을 전하면 모두의 하루가 따뜻해질 겁니다.'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자의 의도를 숨겨 광고를 보는 사람이 그 의도를 유추하는 재미를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이 광고는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하고, '처음만 힘들지'라는 자막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 먼저 마음을 전하자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② 이 광고는 앞부분(장면 ①~③)에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뒷부분(장면 ④~⑥)에서 상대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구성을 반복하고 있다.

④ 이 광고는 영상 광고로, 이미지, 노랫말, 자막,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9 이 광고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행동을 통해 변화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들고 가던 물건이 쏟아졌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가게에서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0 장면 ③에서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받은 택배 배달원이 <보기>에서 일을 하며 마주친 경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료를 건네고 있다. 이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됨을 보여 줌으로써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① '상처 치료제 광고'는 어린이를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12 아이가 부모 곁에서 그림책을 보며 웃고 있는 장면은 어린이를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이므로, 고정 관념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집안일과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③ 트랙터와 같은 기계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것은 남성의 일이라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④ 어린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그려, 어린이가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⑤ 노인을 활기치게 운동을 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노인을 나이 든 존재로만 보는 고정 관념을 깨뜨린 사례에 해당한다.

13 (가)는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로,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리고 있다. 즉, 특정 손 세정제를 고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는 거품형 손 세정제의 우수한 기능을 부각하여 소비자가 특정 손 세정제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② (가)는 '비누로 비벼요, 30초 이상.'이라는 내용을 줄임말인 '비비삼'으로 표현하고, (나)는 상품 구매자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하단에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호흡기 질환 20% 감소', '설사 질환 30% 감소'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나)는 '항균 효과 90.9퍼센트'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6단계로 나누어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나)는 항균 효과와 풍부한 거품, 촉촉한 수분 공급과 같은 제품의 장점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14 광고에서 쓰는 용어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광고는 설득이 목적이지만, 학문적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점검할 요소로 적절하다.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01.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본책 20~23쪽

- ① 예시 ② 분류 ③ 둔감 ④ 경험 ⑤ 유추
⑥ 기다림

-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5 주변의 변화에 둔
감해질 때 06 ③ 07 ① 08 ② 09 ② 10 ③
11 ④ 12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
이 필요하다. 13 ③ 14 ③ 15 ①

- 01 이 글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2 이 글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 소개하면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 03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이 글에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뜻을 밝혀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동굴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⑤ (다)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04 (다)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두 거꾸로 흐를 수 없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상황에 따라 거꾸로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05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는 (라)와 (마)에 드러난다. (라)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고 하였고, (마)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 06 <보기>는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 07 (마)에서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아이들이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아 이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오래 남는 반면, 어른들은 경험이 쌓여 새롭다고 느끼는 일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기억에 잘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8 이 글은 글쓴이가 의견이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이 독창적인지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09 이 글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브레송, 세잔, 정선 등 다양한 사례와 함께 그들의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현대 사회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글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다림의 필요성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③ '관찰'이라는 개념의 뜻과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날 뿐, 이에 대한 여러 입장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④ 이 글에 서로 반대되는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이유 및 근거만 드러난다.

⑤ 이 글에 문제 제기나 이에 대한 해결 방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결정적 순간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0 (라)에서 세잔은 오랜 시간 여러 시점에서 산을 관찰한 끝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산의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세잔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산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없다.

11 (바)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서로 다른 속성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보기>에 정리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주장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가 적절하다.

13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기다림의 시간 없이 우연한 계기로 원하는 순간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4 브레송의 사진이 절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것이 아니다. 브레송은 카메라를 자신의 두 눈처럼 늘 지니고 다니면서 눈과 마음을 열어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장면을 포착했다고 하였다.

15 세잔은 오랜 시간 여러 시점에서 산의 모든 변화를 지켜본 끝에 대상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담은 '생트 빅투아르산' 연작을 그렸다. 그리고 정선은 오랜 시간 폭포를 관찰하면서 폭포가 갖고 있는 낯선 차이를 포착하여 역동적인 폭포 그림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작품이 지닌 공통점은 대상을 오랜 시간 꾸준히 관찰해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낸 것이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본책 24~27쪽

- ① 사실 ② 수준 ③ 특성 ④ 목적 ⑤ 개요
⑥ 주제 ⑦ 인과

- 01 ⑤ 02 ⑤ 03 ① 04 ① 05 ④ 06 나-ㄹ
-ㄱ-ㄱ-ㄷ 07 ① 08 스트레스의 종류보다 스트레스
의 개념과 반응을 먼저 제시한다. / '중간 1'과 '중간 2'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한다.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④

- 01 (가)에서 진서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비유 표현을 활용하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2 (가)에서 진서는 예상 독자에 따라 고려할 점을 떠올리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 독자라면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심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이 독자라면 스트레스에 관한 배경지식이 많을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예상 독자의 연령대, 지식 수준, 기대나 요구 등에 따라 글의 목적 또는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서는 예상 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한 것이다.
- 03 (나)는 스트레스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스트레스의 신체적 개념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질환과 심리적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
- 04 (가)에서 진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어떤 정보를 설명할지 떠올리고 있다. 스트레스의 정확한 뜻은 (나)를, 스트레스의 종류와 관련한 내용은 (다)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내용은 (라)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까닭에 관한 자료는 (나)~(라) 중에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05 (라)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역할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라)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등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임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간 예를 제시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06 설명하는 글은 '계획하기(ㄴ), 내용 생성하기(ㄹ), 내용 조직하기(ㄹ), 표현하기(ㄱ), 고쳐쓰기(ㄷ)'의 과정으로 쓴다.

- 07 (가)의 개요는 글을 쓰기 전에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여 요점을 정리한 것으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개요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다.
- 08 <보기>는 개요를 작성한 후 글의 흐름이나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가)의 개요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예상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스트레스의 종류가 제시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9 <보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가)의 개요 중 ㉠의 내용을 설명할 때 <보기>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0 (나)에서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제시하여, 그 원인이 학업 및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이라고 하였다. 분류와 예시의 방법은 드러나지 않는다.
- 11 (나)는 첫 문단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12 '스트레스'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목이므로,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라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3 이 글은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1 <오답 풀이> ② <보기>의 자료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보기>의 자료 중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수치에만 해당한다.
- ④ <보기>의 자료 중 전문가의 의견 인용에만 해당한다.
- ⑤ <보기>의 자료는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14 ㉠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를 예로 들어 스트레스의 종류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이는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적절한 사례이다.
- 15 고쳐쓰기를 하면 문장을 매끄럽게 수정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의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개성 있는 글을 완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01.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본책 28~31쪽

- ① 능동적 ② 태도 ③ 개선 ④ 경청 ⑤ 비언어적
⑥ 불안 ⑦ 긍정적

01 ④ 02 ③ 03 아빠가 말한 '오금'이라는 단어가 '무릎 뒤쪽'을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04 ④ 05 (모듬별 과제로)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조사할 주제를 정하려고 한다.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한다. 14 ⑤

01 (다)에서 아빠는 운동을 하던 중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아빠는 오금이 아파서 더는 못 뛰겠다.'와 같이 말하였다. 따라서 아빠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2 (가)에서 여학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남학생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듣기 태도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ㄴ). (나)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듣기 태도의 문제점을 점검 및 조정하여 남학생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처럼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하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ㄷ). (라)에서 아빠는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딸이 이해하기 쉬운 '무릎 뒤쪽'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딸은 아빠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말하면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ㄹ).

| 오답 풀이 | ㄱ. (가)에서 남학생은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먹을 것을 사러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ㄴ. (다)의 딸은 아빠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말한 '오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3 (다)에서 딸은 아빠가 말한 '오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빠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금'이 5개의 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듣기·말하기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 및 조정하기 위해, (라)에서 아빠는 딸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오금'을 '무릎 뒤쪽'이라는 말로 바꾸어 쉽게 풀어서 말하고 있다.

04 듣기·말하기 전의 점검 및 조정 방법으로는 듣기·말하기의 상황 및 목적 파악하기,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파악하기 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듣기·말하기 후의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⑤ 듣기·말하기 중의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05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모듬은 어떤 주제를 조사할지 함께 의논해 보자.'라는 우주의 말을 통해 우주네 모듬이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모듬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우주는 대화의 상황 및 목적을 제시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모듬원이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대화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상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등 대화를 잘 이끌어서 모듬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모듬 과제의 주제를 정하였다.

07 서아는 모듬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는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게 함께 라면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대화 후에는 앞으로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점검 및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대화에서 서아가 적절하지 않은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A]에서 서아는 친구들이 자신이 말한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파악하고,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여 말하고 있다(ㄱ). 그리고 우주는 모듬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는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서아의 말에 숨겨진, 과제의 주제를 청소년의 바른 자세로 정하면 좋겠다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ㄷ).

09 지후는 ㉠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아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상대의 의견에 대한 동의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0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기며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은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 아니라,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에 해당한다.

11 (가)에서 서아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부터 다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다.

12 (가)에서 서아는 발표 중에 민수의 표정을 보고, 청중이 자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지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처럼 청중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말하기 불안이 더 가중될 수 있다.

13 (나)는 뮤지컬 배우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다)에서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려면 말하기에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등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02.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본책 32~35쪽

- ① 발표 장소 ② 청중 ③ 조직 ④ 발표 순서
⑤ 전개 ⑥ 자막 ⑦ 도표

01 ④ 02 ④ 03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04 ① 05 ② 06 ④ 07 청중에게 친숙하면서 발표의
화제와 유사한 대상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다.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 ④ 14 ④ 15 ① 16 ③

01 발표할 때에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청중과 소통하며 준비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발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
하는 것은 발표를 할 때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발표의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발표의
세부 내용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③ 발표 장소에 따라 활용할 자료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
표를 계획할 때에는 발표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⑤ 발표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도입 - 전개 - 정리'로 나누어 내
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02 발표하기 과정 중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다양
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
료를 선별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
서 수집한 자료 중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면 발표에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03 발표문의 '정리' 부분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
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04 <보기>에서는 발표를 하는 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에 대한 반응을 살펴 보면서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
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발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
중과 소통하며 발표 예절을 잘 지켰는가?'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나)에서 발표자는 '이 초록빛 친구들이 어떻게 제 삶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청중에게 던지며 청중의 호
기심을 유발하는 등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발표하고 있
다. 그러나 청중에게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다)에서 발표자인 지후는 반려 식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오랜 친구의 위로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지후가 속상할 때
오랜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는 이 발표를 통
해 확인할 수 없다.

07 (가)에서 발표자는 반려동물에 대해 언급한 후, 발표의 화제인
반려 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청중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
는 반려 식물을 소개하기 전에 청중에게 친숙하면서 발표의
화제와 유사한 반려동물을 먼저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해서이다.

08 ㉠은 반려 식물의 뜻을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뜻
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 오답 풀이 ① 작은 것에서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은
분류이다.

③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이다.

④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분석이다.

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
은 대조이다.

09 발표자는 ㉠ '화면 속 사진'을 가리키며 '이 작은 친구들은 제
가 기르고 있는 반려 식물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발
표자가 기르는 반려 식물을 보여 주며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
기 위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10 (마)에서 반려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플
랜테리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으나, 플랜테리어에 활용하
수 있는 식물의 종류가 한정적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11 (가)에서는 도표를 활용하여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에 관
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때 두 연구의 결과
는 모두 식물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므로, 두 연구 사례의 결과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12 (다)에 제시된 자료는 (다)와 (라)에서 설명하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나누어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그림을 활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시
각화하여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 수 있다.

13 ㉡은 '플랜테리어'의 단어 형성 방법을 밝혀 청중이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인 정의는 사용되지 않았다.

14 (라)에서는 식물을 잘 돌보기 위해 분갈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식물이 자랄수록 더 큰 화분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은 분갈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일 뿐, (라)
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 없다.

15 교실에서는 영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라)
의 영상 자료와 같이 자막을 추가하면 청중에게 구체적인 분
갈이 방법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6 ㉢은 식물을 잘 돌보는 방법에 관한 핵심 단어를 간단한 그림
과 함께 제시하여 청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
서 ㉢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해력을 높이는 문제집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01.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본책 39쪽

- 01 ㉠ 02 ㉡ 03 ㉢ 04 포만감 05 추억하다
06 개선하다 07 ㉤ 08 ㉥ 09 ㉦ 10 만족감
11 각색되어 12 능동적

- 04 '성취감'은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이라는 뜻이다.
05 '기억하다'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다.
11 제시된 문장은 소설로 된 문학 작품이 영화라는 다른 형태로 고쳐져 개봉하였다는 맥락으로, '서사시나 소설 등의 문학 작품이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이다.'라는 뜻의 '각색되어'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그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맥락으로,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의 '능동적'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문학 속 말하는 이나 보는 이)

본책 41쪽

- 01 ㉠ 02 ㉡ 03 ㉢ 04 지질하다 05 타박
06 객지 07 ㉤ 08 ㉥ 09 ㉦ 10 불통하게
11 일렁이는 12 살래살래

- 04 '남루하다'는 '옷 등이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라는 뜻이다.
06 '타향'은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이라는 뜻이다.
08 제시된 문장은 그녀가 약속에 늦은 까닭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자 그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맥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라는 뜻의 '자초지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아이가 심통이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답한다는 맥락으로, '통명스럽고 무뚝뚝하다.'라는 뜻의 '불통하게'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제안을 거절하는 표시로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는 맥락으로, '작은 동작으로 몸의 한 부분을 가볍게 잇따라 가로흔드는 모양.'이라는 뜻의 '살래살래'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0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본책 43쪽

- 01 ㉠ 02 ㉡ 03 ㉢ 04 복구하다 05 예보
06 객관적 07 ㉤ 08 ㉥ 09 ㉦ 10 과도한
11 왜곡하여 12 간결하고

- 06 '주관적'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09 제시된 문장은 글을 읽을 때 개별적인 문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내용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맥락으로, '사물 등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는 뜻의 '맥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0 제시된 문장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맥락으로, '정도에 지나치다.'라는 뜻의 '과도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그림을 활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간단하면서도 짜임새가 있다.'라는 뜻의 '간결하고'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본책 45쪽

- 01 ㉠ 02 ㉡ 03 ㉢ 04 제작자 05 배제하다
06 수혈 07 ㉤ 08 ㉥ 09 ㉦ 10 관점 11 반영될
12 추구한다

- 06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줌.'이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이 소설이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인물의 시선에서 그려 내고 있다는 맥락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뜻의 '관점'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학기 말 평가 성적에 이번 수행 평가의 점수를 포함하여 최종 성적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맥락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뜻의 '반영될'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행복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도 얻고자 한다는 맥락으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는 뜻의 '추구한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01.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본책 47쪽

- 01 ㉠ 02 ㉡ 03 ㉢ 04 주의하다 05 무아지경
06 귀납 07 ㉡ 08 ㉢ 09 ㉢ 10 설득력
11 설명 12 유래된

- 05 '무지몽매'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세상 이치에도 어두움.'이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진지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가 주장을 강화한다는 맥락으로,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깨우치는 힘.'이라는 뜻의 '설득력'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미술관 누리집에서 미술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맥락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또는 그런 말.'이라는 뜻의 '설명'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족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맥락으로, '사물이나 일이 생겨나게 되다.'라는 뜻의 '유래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설명하는 글 쓰기)

본책 49쪽

- 01 ㉠ 02 ㉢ 03 ㉢ 04 실태 05 이완
06 통일성 07 ㉡ 08 ㉢ 09 ㉠ 10 척도
11 대비해야 12 긴밀한

- 05 '긴장'은 '근육이나 신경 중추의 지속적인 수축, 흥분 상태.'라는 뜻이다.
06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등이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이라는 뜻이다.
10 제시된 문장은 취업률이 학교의 수준과 명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맥락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이라는 뜻의 '척도'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의 '대비해야'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맥락으로,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라는 뜻의 '긴밀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01.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본책 51쪽

- 01 ㉠ 02 ㉢ 03 ㉢ 04 암시 05 식상하다
06 능동적 07 ㉢ 08 ㉡ 09 ㉢ 10 본받는
11 긴장한 12 개선하기

- 07 제시된 문장은 내가 친구의 고민을 집중하여 듣고 그에 대한 조언을 솔직하게 해 주었다는 맥락으로,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뜻의 '경청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8 제시된 문장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맥락으로, '약조건이나 고생 등을 이겨 내다.'라는 뜻의 '극복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제시된 문장은 선수들이 결승 경기를 앞두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떨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맥락으로,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라는 뜻의 '긴장한'을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회사가 기존 제품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는 맥락으로,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들다.'라는 뜻의 '개선하기'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02.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본책 53쪽

- 01 ㉢ 02 ㉢ 03 ㉠ 04 조직하다 05 수준
06 웃자람 07 ㉢ 08 ㉠ 09 ㉢ 10 생육
11 발표하였다 12 의지하지

- 04 '구성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다.'라는 뜻이다.
06 '일조량'은 '일정한 물체의 표면이나 지표면에 비치는 햇빛의 양.'이라는 뜻이다.
11 제시된 문장은 우리 모두가 과학 실험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여 반 친구들에게 알려 주었다는 맥락으로,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다.'라는 뜻의 '발표하였다'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
12 제시된 문장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맥락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뜻의 '의지하지'를 고르는 것이 적절하다.